

中 미세먼지 청원에 靑 “모든 대책 추진”

“미세먼지 정상회담 의제화 등 외교·정책 수단 총동원될”

청와대는 16일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노력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손잡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을 상대로 미세먼지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청원자 주장에는 관련 국제 조약과 양국 입증 자료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해에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생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디에 출연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달라”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23일 27만 여명의 추천을 받으며 청와대 답변 기준 20만건 이상을 충족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 국민의 최대 관심 사안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언급했다”면서 “리커

창(李克強) 총리도 ‘한국과 함께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미세먼지는 정상급 의제로 다루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또 “지난 5년간 한·중·일 3국이 공동 진행한 미세먼지 연구도 다음달 매듭 짓는다”며 “중국 제철소와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우리 대기오염방지기술을 적용하는 사업, 중국 북부 6개 도시의 대기질을 양국이 조사하는 ‘청천 프로젝트’도 진행하는 등 중국과 상당히 구체적으로 협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청원자의 ‘중국과 소송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제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법 위반과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하는데 현재 관련 국제 조약도 없고, 한·중 양국 정부가 합의한 인과관계 입증 자료도 없는 상태”라고 여건상 어렵다는 뜻

을 나타냈다.

김 비서관은 “우선 실현 가능성 높고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를 의제화하는 등 외교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동시에 양자·다자 공동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도 처음에는 국의 비중이 높았는데 국내 요인이 최대 68%까지 올랐다. 대기 정체로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나온 국내 미세먼지가 점점 쌓이면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이르렀다”며 “한·미(NASA) 공동연구 시 국내 영향만으로도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된 만큼 국외대책과 함께 국내 미세먼지 대책이 함께 가야만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생활 속 공예문화 확산 전주시 박순중 부시장과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최봉현 원장은 16일 오후 전주시청 부시장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각 기관 간 우호적인 상생 협력 및 교류 관계를 구축해 공예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공예의 산업화·세계화·대중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농식품산업 역량강화’...전북생진원, 교육 프로그램 추진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전북도의 지원을 받아 전북 농식품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2018년 식품산업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재직자 및 예비취업자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기업운영, 제품개발,

인증관리, 마케팅 등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기업과 예비취업자간 네트워킹을 통한 취업 연계까지 이뤄지는 사업이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HACCP 팀장 과정 교육, 미생물 분석기술, 식품 위생법, SNS마케팅과정(초·중급), 해

외 수출과정 등이다.

또 HACCP 지정과 분야별 애로사항에 대한 멘토링 및 컨설팅 등도 진행된다.

신청 희망자는 전북생물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jf.re.kr) 공고란을 참조해 이달 말일까지 신청서를 진흥원 인력양성팀(063-210-6574)으로 제출하면 된다.

/뉴시스

지방선거 유권자 개표 참관하실분?

도선관위, 19일부터 5일간 개표소 참관인 공개 모집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부터 23일까지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할 개표참관인을 공개 모집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개표참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v.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

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일정 신분의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이번 공개모집하는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도내 15개 개표소에서 참관 활동을 하게 된다. /김진성 기자

‘새만금 특별법 통과 주도한 공로로’

도, 국회 조정식 국토위원장에 전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전북도는 16일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기여한 공이 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조정식위원장은 지난 1987년부터 선거철마다 잠깐씩 공약으로 제시될 뿐 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움이 되고자 새만금 개발관련 토론회 및 간담회 등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왔고,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공공주도 용지 매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동안 전북도의 유일한 국책사업으로 국가의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진기지에 가장 적합한 사업이라는 논리와 하루빨리 수면위로 드러내어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왔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인류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기여한 공이 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문명사를 빛낼 삶의 터전인 새만금개발에 큰 힘이 되어 주신 데에 거듭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전북권 총괄기획자 선정

전주대 산학협력단은 16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7권역(전북권) 총괄기획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에 이어 총 50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문화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은 국내 관광을 촉진하고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업이다. 관광 수준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1개 권역당 3~4개 지역자치단체를 묶어 총 10개 관광 권역으로 구성하고 5년 동안 권역당 약 100억원,

전체 총 1,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2017년, 전주대 산학협력단은 ‘전주-군산-부안-고창’을 주 거점으로 ‘시간여행101’ 테마로 사업을 진행했다. 선사시대 고인돌(고창)부터 고려 청자(부안), 조선시대 태조어진과 한옥마을(전주) 그리고 근대거리(군산) 등 연대별 관광지를 한꺼번에 둘러볼 수 있도록 여행 테마를 만들었다.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특색있는 주제와 볼거리로 많은 관광객을 전북지역으로 유입시킨 바 있다.

전주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사업에 선정되면서 올해에도 ‘전

주-군산-부안-고창지역’의 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기획, 홍보마케팅 등을 아우르며 문화관광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을 기획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주대학교는 2017년 진행했던 ‘시간여행101’ 사업을 발전시켜 관광안내소 운영, 무료 Wifi 구축 등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동취재반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